

# 한국 남해안 별신굿과 중국 귀주성 나회의 무속복식 비교연구

- 굿놀이를 중심으로 -

김은정<sup>+</sup> · 김초영<sup>\*</sup>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sup>+</sup> · 전남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박사과정<sup>\*</sup>

## A Comparative Study on Shaman's Costume of south coast *Byeolsingut* in Korea and the Guizhou *Nahui* in China

- Focusing on the *Gutnori* -

Eun-Jung Kim<sup>+</sup> · Cho-Young Kim<sup>\*</sup>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Ecology<sup>+</sup>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sup>\*</sup>

(2016. 5. 1 접수; 2016. 7. 11 수정; 2016. 7. 19 채택)

### Abstract

Gutnori(ritual A Comparative Study on Shaman's Costume of south coast *Byeolsingut* in Korea and the Guizhou *Nahui* in China play) refers to a play in the form of showing actual appearance of god and actual comedic gag with gutguri rhythm. In order to carry out a comparison between the shaman's costume in Korea and China, this study will delve into the types of shaman costumes that are worn in the gutnoris(mask plays) performed in Korean guts and those of China performed in Nahui.

As research method, literature reviews and field surveys have been conducted concurrently. In terms of literature reviews, previous research have been studied centrally. For field surveys, Korean gut, Byeolsingut performance was observed for 2 days 1 night between 1st Feb. 2014-2nd Feb. 2014 in the south coast and Chinese Nahui in Guizhou was observed for 2 days 1 night between 25th Nov. 2014-26th Nov. 2014.

By comparing Shaman's costume that is worn in Korean shamanism with that of Chinese shamanism as a partial means of understanding the uniqueness of Korean shaman's costume,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erived upon focusing on the common types of gutnori costumes and organizing them.

As a universal trait for shaman's costumes in gutnori and nahui in Korea and China, traditional clothing were worn. A unique trait for shaman's costume in gutnori and nahui in Korea and China, deity expressions were shown in both cases using colors.

*Key Words:* Shaman's costume(무속복식), Byeolsingut(별신굿), Nahui(나회), Traditional clothing(전통복식)

## I. 서론

오랜 기간 동안 무속은 지역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공동체의 매개로 민족문화의 기층을 형성

---

Corresponding author ; Eun-Jung Kim  
Tel. +82-2-530-1347, Fax. +82-2-530-1349  
E-mail :kimej0234@hanmail.net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3044900)

해 온 지역민들의 애환과 염원이 응축된 삶의 역사라고 하겠다. 그 생생한 무속의 현장에서 무속 복식은 당대인의 생활상과 모습을 그대로 담아냈다.

한국과 중국 무속에 관한 연구는 민속학, 인류학 관점에서 많이 연구되었으며 근대 중국무속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북방의 살만교(薩滿教)와 남방의 나(儺)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학자들의 보편적인 관점으로 현재 중국의 무속은 북방의 살만교와 남방의 나로 나뉜다고 한다.

현재 중국학계의 무속에 대한 이해는 역사적으로 무속관련 풍속(高國藩, 1999), 그리고 민간 나희(庾修明, 1992; 王秋桂, 1993; 黃强, 1996), 소수민족의 전통신앙(庾修明, 2000) 등이 중심이 된다. 중국에는 나(儺)를 향유했던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별로 다양한 나(儺)가 형성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이후에야 전통문화의 발굴정책이라는 정부차원의 공공사업에 따라 현지조사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지조사를 통한 관련 자료들은 데이터베이스화되었고, 이에 지방 및 국제학술대회개최를 통해 나(儺)에 관련된 논문집 및 자료집이 다수 출판되고 있다.

한국의 굿은 2000년대 이후에는 한국 무속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 시대구분과 시대적 변화, 연희로써의 무속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에는 점차 논제의 다양화와 연구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연구방법이 세분화되고,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무속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속에 대한 민속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의 자연환경에 따라 한국 무속의 특징을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한국의 굿의 종류를 정리한 연구(하효길외, 2002)가 있다.

이러한 한국의 굿은 종류가 다양한데 굿을 연행하는 주체나 종류에 따라 드물게 굿놀이가 구성되어있다. 중국무속인 나희(儺戲)는 재앙을 쫓고 복을 비는 무속제의에 연극적 놀이가 결합된 형태의 종교제의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나희는 나(儺)의 일환으로 연행되는 놀이의 일종이며, 한국 굿의 구성 중 굿놀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

안 참관했던 굿 중에서 한국 굿에서 가면을 착용하고 연행하는 굿놀이와 중국 나희에서 가면을 착용하고 연행하는 굿놀이를 선정하여 굿에서 착용하는 무속복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는 굿놀이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남해안 별신굿과 귀주성 나희에서 착용하는 복식이 거리에 나타나는 각 신을 상징하는 굿의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굿을 연행하는 가운데 굿놀이는 신의 직접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나 굿거리를 연행하면서 희극적인 재담의 형태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한국과 중국에서 굿을 연행하는 의례 진행방식의 일종으로 놀이 형태를 가진 절차를 굿놀이라고 한다. 이러한 굿놀이는 매우 기본적인 극적 구조를 갖추고 있는 형태로부터 고도로 분화된 형태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연행되고 있다(김은희, 2008).

본 연구는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던 다양한 굿 중에 굿놀이 라는 굿거리 구성을 가진 198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82-라호로 지정된 한국 남해안 별신굿과 2005년에 중국의 국가급비물질문화유산(무형문화유산)목록으로 지정된 중국 귀주성 나희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대상인 무당과 토로사는 신과 인간의 소통을 더욱 밀접하게하기 위해 얼굴에 가면을 쓰고 신의 역할 또는 신의 사자 역할을 하며, 유희적이고 연극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굿놀이와 나희를 연희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고찰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현장조사는 연구자가 사전조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연행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의 굿은 2014년 2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로 연행되었던 남해안 별신굿으로 굿놀이를 포함하여 들맞이 당산굿부터 띠배놀이까지 14개의 굿거리로 구성되었다. 중국의 굿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 간 연행되었던 귀주성 나희로 굿놀이를 포함하여 개단에청(開壇禮請)부터 유나송정송신상마(遊儺送呈送神上馬)까지 총 13개의 장차로 구성되었다. 한국 굿거리와 같은 의미로 중국 나희에서는 장차(場次)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남해안 별신굿놀이

남해안 별신굿은 보통 1박 2일로 진행되는 곳으로 과거 연구자료(김형근, 2012)에 따르면 굿이 진행되는 시기에 따라 각 굿거리와 굿놀이의 유무가 다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하였던 2014년 남해안 별신굿은 굿놀이를 포함하여 들맞이 당산굿부터 띠벳놀이까지 14거리로 구성되었으며 굿놀이는 9번째 거리에 진행되었다. 굿놀이는 해미광대놀이, 판놀음, 중광대놀이를 3개의 놀이가 모여 1개의 굿거리를 구성한다.

별신(別神)굿은 촌락 공동체의 큰굿(大祭, 대고사)이며, 매년 지내는 동제와 달리 몇 년 터울로 벌어지는 별제(別除)이다. 주제에 따라 달라지는 굿의 종류 중 마을굿에 해당하는 별신굿은 마을의 역사, 내력을 풀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액을 막아주는 주술적이고 사회적인 집단행위라 할 수 있다(조정현(2004). 이러한 남해안 별신굿은 무속에서 소리뿐 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애환인 죽음과 탄생, 평화와 천지변, 질병, 건강, 풍어 등을 춤 속에 담는 의미와 굿놀이를 통해 친화와 연대감을 가져다주어 전통성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어왔다(남해안 별신굿보존회, 2015).

2014년 2월 1일 죽림별신굿은 경남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 죽림마을에서 이루어졌으며 남해안 별신굿 예능보유자인 정영만(남, 1956~)의 이수자인 이선희, 전수자인 이수정, 공임정과 심민서에 의해 진행되었다. 또한 굿의 순서는 들맞이 당산굿-산기도-일월맞이-골매기굿-부정굿-가망굿-제석굿-선왕굿-해미광대놀이·중광대놀이-용왕굿-지동굿-군웅굿-시석-띠벳놀이를 총 14거리로 진행되었다.

굿놀이의 내용은 산중에 있는 당산할미가 굿소리를 듣고 마을에 내려와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고 마지막으로 마을의 풍어와 각 가정의 평안을 빌어주는 내용으로 교훈적 성격과 함께 놀이적 성격이 강한 해학과 풍자가 깔려있는 놀이이다. 해미가 굿판에 등장하여 손님 굿을 해주겠다고 굿을 하다가 관객에게 오줌을 뿌리는 행위를 하고, 또 제석 굿을 하다 해산을 한다며 관객에

게 미역 값을 받아간다. 해미광대놀이가 끝나면 기녀, 머슴, 병신이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흥을 돋운다. 중광대놀이는 소모가 먼저 등장하여 관객 속으로 숨어들면 중이 소모를 찾아다니는 과정을 통해 중의 행동에서 관객에게 재미를 주고 마지막에 동석이 마을(洞席)을 대표하여 중의 파계된 행동을 꾸짖는다.

이렇듯 남해안 별신굿놀이는 굿의 진행과정 중 관객과 소통, 굿의 흥미를 유발하는 이완 장치로 사용되었다. 굿 구경이 조금 지루해 질 저녁 무렵에 진행되어 단순히 마을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것에서 떠나, 함께 신명을 푸는 시간이 된다. 지루함을 쫓고, 색다른 재미를 주는 것이 굿놀이 이다. 게다가 해미광대놀이와 중광대놀이 사이에 벌어지는 판놀음은 마을 사람들이 풍물가락에 함께 어우러지는 신명잔치가 된다. 이러한 남해안 별신굿의 굿놀이는 굿거리로 독립되어 진행되어 그 내용은 단순히 놀이만으로 치부 할 수는 없다(김형근, 2010).

### 2. 귀주성 나희

현재 중국에서 전승되는 무속의례는 일반적으로 제의적인 성격의 무속의례로서, 나제(儺祭)라고 하며 제의사이에서 진행되는 연극적인 성격의 놀이를 나희(儺戲)라고 한다(김은정의, 2015). 나희는 다른 종교가 습합된 무교의식에서 발생하여 민간예술을 흡수하며 변천해온 가면희(假面戲)이다(박진태, 1996).

중국 내에서 방상씨는 곱가죽을 둘러쓰고, 황금사목(黃金四目)의 탈을 쓰고 검은 옷에 붉은 치마를 입고, 창을 잡고 방패를 들고, 많은 수하를 거느리고 때를 나누어 구나하는데, 집안을 돌아다니며 역귀를 쫓는다(呂友仁 譯註, 2004). 귀주성 나희는 1박 2일로 진행되는 나제의 첫날 저녁에 진행되는 놀이이다. 굿놀이는 나희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귀주성 나희는 2005년에 중국의 국가급비물질문화유산(무형문화유산)목록으로 지정되었다. 연구자가 조사하던 나희는 2014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 간에 국가급 전승자인 안영백(安永柏, 남, 50세) 나의 팀에 의해서 행한 나희이다.

조사가 이루어졌던 귀주성 나희는 중국 서남

〈표 5〉 남해안 별신굿 굿놀이와 귀주성 나희의 가면과 역할

남해안 별신굿			귀주성 나희		
등장 인물	가면	역할	등장 인물	가면	역할
해미		마을의 무사태평을 빌어주는 무조신(無祖神)과 동시에 동신(洞神)의 복합신격으로 수호신과 생산신의 직능을 수행.	당씨태파		나희에 출연하는 대부분의 신이 갠힌 도원동의 문을 지키며 열쇠를 관리하는 선한 신.
기녀		기녀의 춤사위와 머슴, 병신의 우스운 동작을 통해 별신굿 중간에 긴장을 풀고, 관객들에게 다음 굿을 이어갈 수 있는 신명을 돌리춤.	선랑	-	당씨태파의 머느리로 당씨태파 대신 침각장군과 도원동의 문을 엮.
머슴			구주화상		원주가 성실하고 품성이 좋은지 여부와, 나희 준비를 잘 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며 관객에게 즐거움을 줌.
병신		제석굿의 연극화로 당금아기(지모신)의 역할을 하며 중과 성적 결합을 통해 마을의 풍요다산을 기원	개산망장		요괴를 진압하는 맹장으로 원주를 위해 사방의 귀괴정령을 척살하고 집안의 무사태평을 기원.
소모			토지신		원주를 위해 벽사진경하고, 재물과 복을 주며 수명을 연장시키는 일을 함.
중		제석굿의 연극화로 세존스님(천부신)의 역할을 하며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생산신. 파계승에 대한 풍자.	선봉소저		두 개의 백색 선봉기를 들고 가무를 하며 집안의 기운을 바로잡고 원주의 염원이 원만하게 성공할 것임을 약속함.

(출처: 남해안 별신굿(2014. 2. 1)연행과 귀주성 덕강현(2014. 11. 5)연행과정 연구자 사진촬영)

쪽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토가족, 묘족, 동족등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중국 귀주성에서 나제를 행하는 무격들은 모두 남자들이고 보통 토로사, 나의사, 법사라고 부른다.(김은

정의, 2015)

귀주성 나희는 개단예청부터 유나성정송신상마까지 총 13장차로 연행되었다. 한국의 굿에서 개별절차를 거리라고 하고, 중국 나희에서는 장

차라는 용어를 쓴다. 장차별 순서는 계단예창-전문진조-탑교회병-탕백-포나하망-봉단방병-타개도원삼동-타개산-출토지-출선봉구원 상터영생-과마단선-번원해결-유나송정송신상마로 구성되었다. 그중 나희는 7장차 타개도원삼동, 8장차 타개산, 9장차 출토지, 10장차 출선봉구원으로 4개의 장차에서 연행되었다. 굿놀이는 타개도원삼동에서 탈들을 보관한 도원산동의 문을 열고 탈이 대표하는 인물들을 청하는 내용으로 장군신과 인병토지·신봉소저의 탈을 쓰고 위용과 무술을 보여주고 마을사람들의 복을 빌어주고 소원성취를 약속하는 연극적인 요소가 많은 해학과 풍자가 깔려있다. 타개도원삼동은 토로사의 부탁을 받은 첨각장군이 나희에 출연하는 대부분의 신들이 갇힌 도원동 문을 열기위해 당씨태파를 찾아가나, 당씨태파 대신 며느리 선량과 함께 도원동으로 가면서 인병토지, 판관, 구주화상 등을 만나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극화시킨다. 타개산은 토로사가 개산망장을 청하면 개산망장이 강림하여 도끼를 휘두르며 춤을 추는데 이것은 원주를 위해 사방의 귀괴정령(鬼怪精靈)을 척살하고 집안을 지켜줄 것과 무사태평을 비는 내용이다.

개산망장은 당씨태파와 더불어 사마를 쫓아내기를 염원하고 이것을 완성시킨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출토지에서는 토로사가 우각을 보면 토지신이 등장하여 유희적인 언어와 동작으로 축원을 하고 원주의 풍농과 가축 번식, 집안일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출선봉구원은 선봉이 두 개의 백색 선봉기를 들고 가무를 하며, 집안의 기운을 바로잡고 원주의 염원이 원만하게 성공할 것임을 약속한다.

### 3. 남해안 별신굿 굿놀이와 귀주성 나희의 가면과 역할

남해안 별신굿 굿놀이와 귀주성 나희에서는 연행자가 가면을 착용하여 인물의 역할이 나타난다. 먼저 남해안 별신굿에서 해미는 마을의 무사태평을 빌어주는 무조신(無祖神)과 동시에 동신(洞神)의 복합신격으로 수호신과 생산신의 기능을 수행을 나타낸다. 소모는 제석굿의 연극화로 당금아기(지모신)의 역할을 하며 중과 성적

결합을 통해 마을의 풍요다산을 기원한다. 증은 제석굿의 연극화로 세존스님(천부신)의 역할을 하며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생산신으로 파계승에 대한 풍자한다.

귀주성 나희에서 당씨태파는 나희에 출연하는 대부분의 신이 갇힌 도원동의 문을 지키며 열쇠를 관리하는 선한 신을 나타내며, 망장은 요괴를 진압하는 맹장으로 원주를 위해 사방의 귀괴정령을 척살하고 집안의 무사태평을 기원한다. 토지신은 벽사진경하고, 재물과 복을 주며 수명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나타낸다.

이에 선행연구(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김형근, 2010; 박진태, 1998, 2014)를 통해 남해안 별신굿 굿놀이와 귀주성 나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가면과 역할을 정리하면 <표 1>와 같다.

## Ⅲ. 한국의 남해안 별신굿놀이복식과 중국의 귀주성 나희복식

남해안 별신굿과 귀주성 나희는 신을 모셔와 인간이 원하는 것을 빌고, 또 신의 말을 인간에게 전하다가 다시 신을 보내주는 영신(迎神)에서부터 송신(送神)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유사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욱이 신과 인간의 소통을 밀접하게하기 위해 한국의 무당과 중국의 토로사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신의 역할 또는 신의 사자 역할을 하며, 유희적이고 연극적인 요소를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굿놀이에서 공통적인 특성은 제의적 성격과 함께 놀이적 성격이 있다.

이를테면 타개도원삼동은 도원동에서 나희 신들을 청해오는 영신 의례극이고, 타개산은 집안의 역귀를 쫓는 축귀 의례극, 출토지와 출선봉구원은 오곡이 풍성하고 가축이 번식하길 축원하며 원주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축원 의례극이다(박진태·최준하, 1996). 남해안 별신굿의 거리와 귀주성 나희의 장차 및 등장인물 복식의 종류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 1. 남해안 별신굿놀이복식의 종류

#### 1) 해미광대놀이복식

해미광대놀이에는 해미(할미)광대 1명이 등장하여, 고인수(약사)와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굿놀이를 진행한다. 해미광대의 복식은 백색 저고리에 적색 치마를 착용하고, 손에는 지팡이와 신방울, 부채를 들었다.

해미의 저고리 형태를 살펴보면 장식이 없는 소박한 소재로 만들어진 무명저고리에 폭이 넉넉하고 길이는 가슴아래까지 내려오며, 소매는 폭이 넓고 직배래에 가깝다. 깃은 폭이 넓은 둥근깃에 고름은 여자 저고리에 비해 폭이 좁고 길이가 짧은 겹고름만 존재한다. 이러한 형태는 여

자 저고리와는 사뭇 다른데 이는 해미 역할을 하는 남자 고인수가 따로 여자 저고리를 착용하지 않고, 자신이 입고 있던 남자 저고리의 도련부분을 안으로 접어 올려 마치 여자 저고리처럼 길이가 짧아 보이게 하였기 때문이다. 해미가 착용한 저고리의 형태는 조선 후기부터 근대의 저고리 형태일 것으로만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저고리의 색상은 무명의 소색 보다는 형광기가 가미된 백색에 가까운데 이것 역시 굿놀이가 발생한 시점의 저고리 양식보다는 현재 착용하고 있는 저고리를 변형해서 착용하였다.

〈표 2〉 남해안 별신굿과 귀주성 나희제차에 따른 등장인물 복식의 종류

남해안 별신굿			귀주성 나희			
	굿거리	복식 종류		장차	복식 종류	
1	들맞이 당산굿	큰머리, 청색 쾌자, 적색 치마, 흑색대대	1	개단예청	오로관, 양면 비갑(적색), 적색 나군	
2	산기도	청색 쾌자, 적색 치마, 흑색대대	2	전문진조	오로관, 나군	
3	일월맞이	가사, 청색 쾌자, 적색 치마, 흑색 가사(어깨) → 백색 저고리, 치마	3	탑교회병	오로관, 양면 비갑(적색), 적색 나군	
			4	탕백	오로관, 나군	
4	골매기굿	큰머리, 청색 쾌자, 적색 치마, 흑색 가사(어깨)	5	포나하망	오로관, 양면 비갑(적색), 적색 나군	
5	부정굿	청색 쾌자, 적색 치마, 흑색 가사(어깨)	6	탁단방병	마괘, 바지	
6	가망굿	백색 저고리, 치마	7	나	타개도원삼동 당씨태파 선랑 구주화상	양면 비갑(적색), 적색 나군 분홍색 오, 적색 나군 흑색 비갑, 적색 나군
7	제석굿	청색 쾌자, 적색 치마, 흑색 가사(어깨)			8	희
8	선왕굿	백색 저고리, 치마	9	희	출토지 토지신	양면 비갑(흑색), 적색 나군
9	굿 놀이	해미광대놀이 해미	10	희	출구원선봉 선봉소저	연두색 오, 적색 나군
		판놀음 기녀 머슴 병신	11		상도영생	오로관, 나군
		중광대놀이 소모 중	12		과마단선번원해결	오로관, 양면 비갑(적색), 적색 나군
10	용왕굿	큰머리, 청색 쾌자, 적색 치마, 흑색 가사(어깨)	13		유나송정송신상마	마괘, 바지
11	지동굿	큰머리, 청색 쾌자, 적색 치마, 흑색 가사(가슴), 한삼				
12	군웅굿	백색저고리, 백색치마				
13	시석	백색 두루마기				
14	띠벳놀이					

(출처: 남해안 별신굿(2014. 2. 1)연행과 귀주성 덕강현(2014. 11. 5)연행과정에서 제작)

## 2) 판놀음복식

판놀음에는 기녀, 머슴, 병신이 등장한다. 기녀는 담황색 저고리에 적색 치마를 착용하였다. 저고리의 깃은 둥근 깃이며 소매는 봉어배레이다. 저고리의 폭은 넓지 않고 길이는 가슴까지 내려오며, 고름은 진홍색의 긴 고름과 짧은 고름을 달았다. 소매 끝과 깃에는 파스텔계열의 연청색과 분홍색 천의 조각보, 꽃모양 자수, 상침 등의 장식이 있다. 기녀가 착용한 치마는 적색의 저고리와 같은 소재로 저고리 아래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길이에 말기 아래로 주름이 잡힌 전통치마의 형태이고, 치마 앞쪽에는 백색 향대를 드리웠다. 머슴의 복식은 병신의 복식과 같은 복식으로 백색 저고리와 바지만을 착용하여 소박하면서도 단순한 차림을 표현하였다.

## 3) 중광대놀이복식

중광대놀이에는 소모와 중광대가 등장한다. 소모는 진녹색 저고리에 적색 치마를 착용하였다. 저고리는 전체적으로 진녹색이지만 깃과 끝동, 결마기가 자적색인 삼희장저고리이다. 결마기의 크기는 저고리의 크기에 비해 비교적 크며, 깃은 둥근깃이다. 저고리의 품은 가슴에 꼭 맞는 크기이고 길이는 가슴 아래까지 내려오며, 고름은 자적색의 좁고 짧은 고름을 달았다. 소모의 치마는 적색에 바닥까지 내려오는 전통치마의 형태로 기녀의 것과 비슷하나 허리말기 폭이 넓어 저고리 아래쪽으로 말기가 드러난다. 말기에는 꽃문양 자수를 두어 화려함과 장식미를 더하였으며, 치마 앞쪽으로 백색 향대를 드리웠다.

중은 회색 장삼에 백색 바지를 착용하고, 목에는 염주와 목탁을 걸었으며 손에는 죽장을 들었다. 회색 장삼의 형태를 살펴보면 길이는 중광대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길이이며 겨드랑이 아래로 삼각무가 달려있다. 여밈은 교임에 소매가 매우 넓은 광수(廣袖)이고 상하의가 연결된 포(袍)의 한 형태를 하고 있다. 별신굿 굿놀이에서 착용한 복식의 종류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 2. 귀주성 나희복식의 종류

## 1) 타개도원삼동복식

타개도원삼동에서 당씨태파는 양면 비갑(比甲)에 나군(雛裙)을 착용하였다. 양면 비갑은 전단후장형으로 전체 길이는 발목까지 오며, 여밈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금(對襟)형 무수(無袖)이다. 앞여밈은 세 군데에 끈을 달아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비갑의 형태변화가 비교적 자유롭도록 하였다. 양면 비갑은 안쪽과 바깥쪽 모두 겹감으로 제작되었는데, 당씨태파가 착용한 양면 비갑의 소재는 적색이며 커다란 모란문양이 있다. 나군은 폭이 넓은 2개의 천을 겹치고 겹쳐진 부분은 트여있어 마치 랩 스커트를 연상시키는 형태로 허리말기에 주름이 없고, 말기로부터 치마단 아래까지 긴 띠가 달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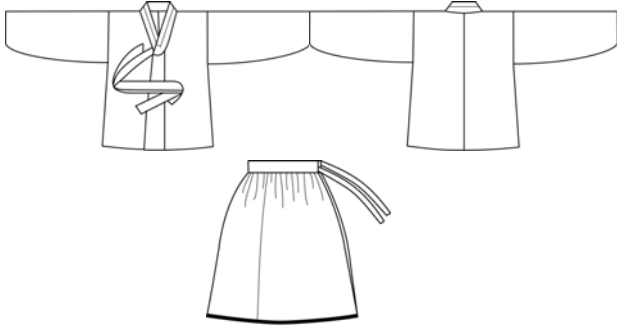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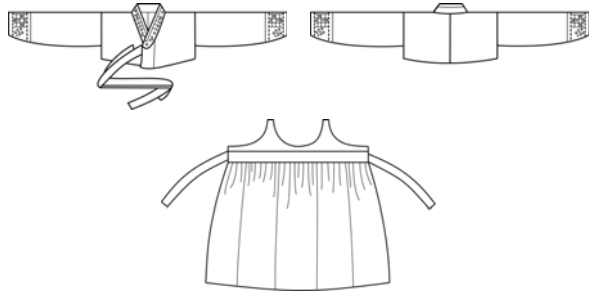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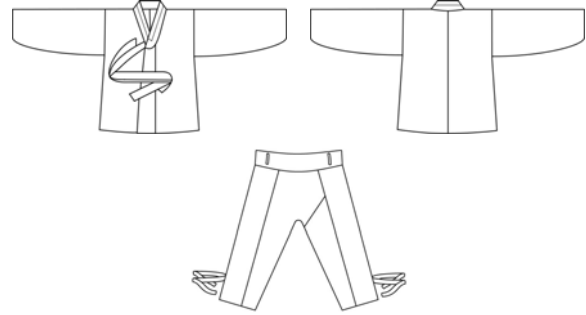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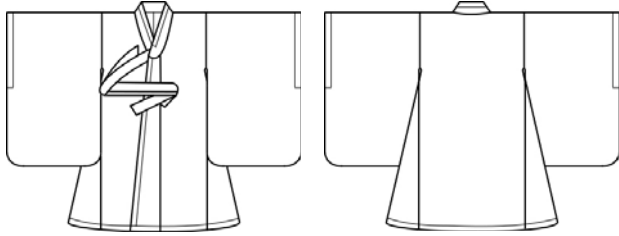
선량은 머리에 모(帽)를 쓰고 오(襖)와 나군을 착용하였다. 모는 이마를 두르는 형태로 두건과 비슷하며, 모의 뒤쪽에는 흑색과 미색, 분홍색의 장원형 타래 위에 망사가 덧씌워져 있다. 그 위에 홍색의 막대형 실타래는 은색의 막대가 가로로 꿰쳐 있어 마치 가계(加髻) 위에 비녀를 꿰은 모양과 비슷하다(김은정 외, 2015). 오의 깃은 스탠딩 칼라 형태이며, 여밈은 단추를 채우는 대금(大襟)형 착수(窄袖)의이다. 선량이 착용한 나군은 허리말기에 주름이 있는 나군으로 말기로부터 치마단 아래까지 긴 띠가 달려있다.

구주화상은 흑색 비갑과 나군을 착용하였다. 전체길이는 무릎정도의 전단후장형으로 여밈과 구성이 양면 비갑과 유사하다. 겹감에 백색의 가선장식과 금색, 은색의 브레이드가 부착되어 있으며 등 뒤에 '나(雛)'자가 프린팅 되어 있다.

## 2) 타개산복식

타개산에는 개산망장이 등장하며, 개산망장은 호의(號衣)와 전군(戰裙)을 착용하였다. 호의는 무수(無袖)의 하나로 겹침이 없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금(對襟)이며, 길이는 허리보다 조금 더 길다. 옆선은 앞판과 뒤판을 실 고리로 두 군데 연결하였으며, 앞쪽의 여밈 역시 끈으로 묶을 수 있게 하여 간단히 고정하는 역할만을 하였다. 면 소재에는 앞쪽 가슴부분에 백색 면 소재로 '호(虎)'자와 '명(命)'자를, 뒤쪽 중앙에는 '왕(王)'자

〈표 3〉 남해안 별신굿 굿놀이 등장인물 복식의 종류와 도식화

	등장인물 복식	도식화
해미 광대놀이	 <p>해미</p>	
관 놀 음 놀 이	 <p>기녀</p>	
	 <p>병신      머슴</p>	
중 광 대 놀 이	 <p>소모      중</p>	

(출처: 남해안 별신굿(2014. 2. 1)연행과 귀주성 덕강현(2014. 11. 5)연행과정 연구자 사진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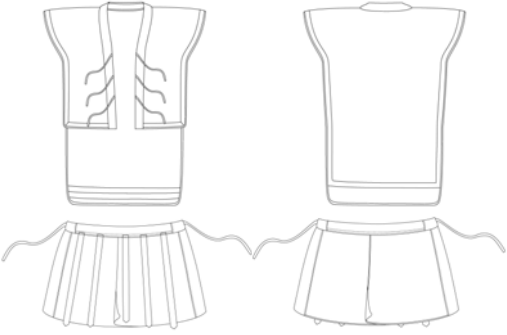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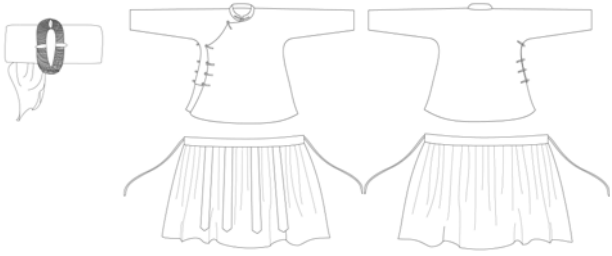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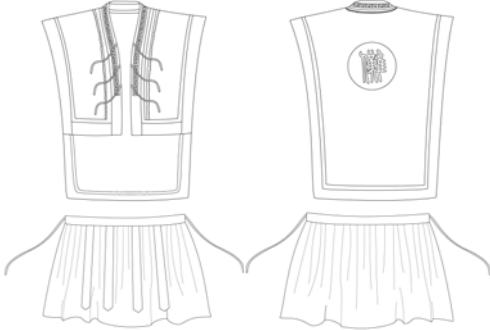
를 아플리케 기법으로 꿰매었다. 착용한 전군 역시 호의와 같은 홍색의 가벼운 면 소재이며, 형태는 띠 모양의 허리말기에 역삼각형의 천 조각 3개를 서로 이웃하게 달아 끝을 겹치게 하였다. 길이는 무릎까지 오며 역삼각형의 치마 조각에는 백색 면 소재로 '삼(三)'자 형태로 세 줄이 아플리케 기법으로 꿰매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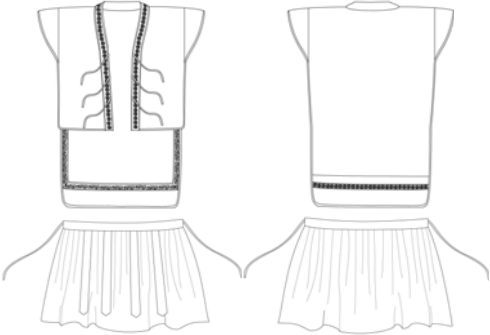


3) 출토지복식

토지신은 양면 비갑에 나군을 착용하였다. 토

지신이 착용한 양면 비갑은 당씨태파의 것과 같은 것으로 형태와 크기, 구성은 당씨태파의 것과 같지만 소재의 색과 장식은 다르다. 당씨태파는 화려한 소재부분을 바깥쪽으로 하여 착용하였다면 토지신은 반대로 흑색을 바깥쪽으로 하여 착용하였다. 토지신 양면 비갑은 전체가 흑색 소재이며, 앞쪽 여밈과 뒷목부분은 안쪽에 사용된 홍색의 화려한 소재로 장식되어있고, 앞·뒷면의 아랫단과 옆선부분이 보라색 자수 브레이드로 장식되어 있다.

〈표 4〉 귀주성 나희 굿놀이 등장인물 복식의 종류와 도식화

	등장인물 복식	도식화
타 개 도 원 삼 동	 <p>당씨태파</p>	
	 <p>선랑</p>	
	 <p>구주화상</p>	

	등장인물 복식	도식화
타개산	 <p>개산망장</p>	
출토지	 <p>토지신</p>	
출구원선봉	 <p>선봉소저</p>	

4) 출구원선봉복식

선봉소저는 연두색 오와 나군을 착용하였다. 선봉소저가 착용한 오는 스탠딩 칼라 형태이며, 여밈은 대금(大襟)형 착수(窄袖)의로 선랑의 오와 유사하다. 몸판은 옆선과 도련이 곧은 직사각형 형태이며, 깃과 앞섶에 매듭단추가 달려있다. 소재는 연두색의 광택이 있는 폴리에스테르이다. 앞판 가운데에는 장미문양이 아플리게 기법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목선과 바깥쪽 선을 따라 금색의 브레이드가, 소매 아래쪽에는 홍색과 황색의 브레이드가 둘러져있다. 귀주성 나희굿놀

이에서 착용한 복식의 종류와 도식화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IV. 한국의 남해안 별신굿과 중국의 귀주성 나희복식의 비교

남해안 별신굿과 귀주성 나희는 신을 모셔와 인간이 원하는 것을 빌고, 또 신의 말을 인간에게 전하다가 다시 신을 보내주는 영신(迎神)에서 부터 송신(送神)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유

사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무당과 중국의 토로사는 굿거리에서 가면을 쓰기 때문에 대사나 말을 통한 의사전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장 가시적인 복식을 통해 신의 의사를 전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굿거리에서 착용하는 복식의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 1. 한국 남해안 별신굿과 중국 귀주성 나희 복식에 나타난 공통점

### 1) 굿놀이에서 전통복식의 차용

남해안 별신굿놀이복식과 귀주성 나희복식은 각 나라의 전통복식에서 그 형태를 살필 수 있었다. 굿놀이복식에서 착용한 복식의 종류를 살펴보면 구성적 차이는 있으나 해미, 기녀, 소무는 저고리와 치마를 머슴과 병신은 저고리와 바지를, 중은 장삼과 바지를 착용하였다. 이러한 복식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복식에서 서민 계층 또는 승려 계층이 착용하던 복식으로 그 형태를 살펴보면 개화기 이전 전통복식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귀주성 나희복식 역시 착용된 전통복식의 종류를 살펴보면 당씨태파, 구주화상, 토지신은 비갑과 나군을, 선랑과 선봉소저는 오와 나군을, 개산망장은 호의와 전군을 착용하였다. 비갑과 오는 중국 원나라 때부터 착용되어 오던 복식이며, 호의는 청대 가장 널리 착용한 군복 중 하나이다. 전군은 갑군이나 경극복식 중 고의 형태를 형상화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갑군은 중국 전통 갑옷 중 하복부를 보호하는 갑옷이며, 고 역시 청나라 면갑(綿甲) 용복(戎服)에서 기원이 된 복식이므로 전통갑옷의 형태이다.

따라서 굿놀이복식은 한국의 전통복식을, 나희복식은 중국의 전통복식을 기반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해안 별신굿놀이에서 착용한 기녀의 저고리는 조각보와 자수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나희의 비갑과 오는 아(亞)자문 장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조각보와 자수, 아자문 장식 모두 한국과 중국 전통복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통복식공예기법 및 문양이다.

### 2) 신을 상징하는 등장인물의 역할 묘사

남해안 별신굿놀이와 귀주성 나희에서는 복식을 통해 등장인물의 역할과 성격을 표현하여 신을 상징하였다. 굿놀이의 해미는 등장부터 거친 말투와 행동, 흥색과 흑색의 점투성이 가면을 쓰고 등장하여 이를 보고는 성별을 판단하긴 힘들지만 저고리와 치마를 입음으로써 여성임을 드러낸다. 또한 저고리 길이는 가슴부분 정도인데 치마는 허리치마로 등과 배를 여실이 들어나게 함으로써 복식을 통해 비교적 나이 든 여성임을 표현하였다. 해미가 복식을 통해 나이든 여성임을 표현한 것과는 반대로 기녀와 소모는 복식을 통해 젊은 여성의 역할을 표현하였다. 중은 회색 장삼에 목에 염주를 걸고 목탁과 죽장을 들고 등장하는데 염주, 목탁은 승려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불구(佛具)이다. 이를 착용한 중의 신분은 승려임을 복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귀주성 나희의 개산망장은 오방의 악귀를 참살하는 흉악하고 사나운 신장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장수(將帥)신이다. 이러한 역할을 표현하기 위해 군복인 호의와 갑군 또는 고의 모양을 형상화한 전군을 착용하고 손에는 도끼를 들었다. 첨각장군은 전군의 허리 쪽에 꿩의 꼬리털과 '수(帥)'자가 쓰인 백색의 삼각기 2개를 꽂는데 이것은 마치 경극복식 중 무사들이 착용한 군복인 고에서 볼 수 있는 형태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이 또한 무력을 통해 악을 물리치는 장수신의 성격을 복식을 통해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한국 남해안 별신굿과 중국 나희복식의 차이점

### 1) 적색 복식을 상징 차이

한국과 중국의 색채사상은 그 뿌리가 같은 음양오행사상에서 영향을 받았으나 각국의 민족적 사상과 문화에 차이가 있어 같은 오방색이라도 서로 다른 상징세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의 전통복식에서 적색이 같은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적색은 남쪽, 여름, 불, 태양, 피, 생명력, 강력한 양의 색, 주작 등을 상징하며 동시에 재앙과 악귀를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도

있다. 반면 중국에서 적색은 경사와 상서로움, 풍작, 주술적이고 신비적이며 원시적인 초능력, 위대한 힘, 지도력을 지닌 자, 국색 등을 중국의 상징처럼 사용된다(김지언, 2009).

굿놀이복식과 나희복식에서도 적색의 의미가 서로 다르게 사용되었는데 굿놀이복식에서는 해미와 기녀, 소무의 치마에서 적색 복식을 찾을 수 있었다. 해미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며 무조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소무는 중과의 성격 결합을 통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소무의 녹색(청색)의 저고리와 적색 치마의 상생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나희복식에서는 양면비갑과 나군, 호의와 전군에서 적색 복식을 찾을 수 있다. 양면 비갑과 나군은 오곡 풍성과 가축번식을 축원하는 신들이 착용하며, 호의와 전군은 악귀와 나쁜 기운을 쫓는 신들이 착용하였다. 이렇듯 굿놀이복식에서 적색은 풍요와 다산을 비는 기복적 의미로만 사용되었으나 나희복식에서 적색은 벽사와 기복의 이중적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2) 굿놀이복식에 나타난 복색의 차이

별신굿놀이복식에서는 적색을 제외한 백색, 녹색(청색), 황색, 회색이 사용되었으며, 귀주성 나희복식에서는 적색을 제외한 흑색, 분홍색, 연두색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별신굿놀이복식에서 사용된 백색은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나타내는 신적 근원상징으로서 성격을 강하므로(신다애, 2009), 해미가 착용한 백색 저고리는 신격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소모의 저고리로 착용된 녹색(청색)은 양기가 왕성하여 출생, 젊음, 생식을 상징하며, 적색 치마와 목생화(木生火)의 상생을 이루어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기녀의 황색 저고리 또한 적색 치마와 화생토(火生土)를 표현하고 있어 강력한 생명과 생산력을 표현한다. 나희복식에서 사용된 흑색은 중국에서는 지하의 색으로써 재생, 풍작을 의미하고 모신과 결합하여 비옥한 대지인 흙과 통한다(김지언, 2009). 때문에 풍농과 풍작을 기원하고 원주에게 재물과 복을 주며, 땅을 상징하는 토지신은 흑색의 양면 비갑을 착용하였다. 연두

색은 녹색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연두색과 분홍색은 주로 경극 복식에서 사용되는 색으로, 경극 복식에서는 색깔등급에 따라 10개의 색을 5개씩 상오색(上五色)과 하오색(下五色)으로 나눈다. 이때 연두색(녹색)은 상오색에 해당하며 연두색 복식은 덕이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분홍색은 하오색에 해당하며 분홍색 복식은 젊은 사람을 상징한다(國劇服裝的色彩初探, 2016. 4. 29). 그러므로 연두색 복식은 원주의 염원을 들어주고 복을 빌어주는 선봉소제가 착용하였으며, 분홍색 복식은 당씨태과의 며느리로 젊은 여자 역할인 선량이 착용하였다.

## V. 결론

한국과 중국 무속복식을 연구하는 것은 전통복식의 제 양상을 살피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이다. 무속의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무속복식은 무속의례 속에서 형태와 기능, 장식과 상징의 역할을 다해왔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무속복식을 비교·연구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 무속복식이 그 자체의 성격과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서로 간에 많은 공통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기초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굿의 연행절차에서 굿거리 성격에 따라 한국의 무당이나 중국의 토로사가 착용하는 복식은 한국과 중국 무속복식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성과 차별성을 갖는다.

한국의 굿이나 중국의 나희를 통해 굿거리 중에 연행하는 굿놀이는 첫날 저녁에 연행하여 굿의뢰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마을의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이웃 모두가 관객으로 참여하는 제의인 동시에 연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굿놀이에서 등장인물은 행동과 대사를 통해 관객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주고, 그 안에서 의례극으로써 제의적인 역할을 함께 하고 있었다.

남해안 별신굿과 귀주성 나희는 신을 모셔와 인간이 원하는 것을 빌고, 또 신의 말을 인간에게 전하다가 다시 신을 보내주는 영신(迎神)에서부터 송신(送神)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유사한 구성이다. 특히 신과 인간의 소통을 더욱

밀접하게하기 위해 한국의 무당과 중국의 토로사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신의 역할 또는 신의 사자 역할을 하며, 유희적이고 연극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굿놀이와 나희를 연희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의 남해안 별신굿과 중국의 귀주성 나희에서 착용하는 무속복식은 굿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굿놀이복식의 종류와 형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굿거리 연행과정에서 나타난 굿놀이복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굿놀이복식에 나타난 공통점으로 남해안 별신굿과 귀주성 나희복식은 굿을 연행하는 가운데 전통복식을 착용하였다. 특히 한국의 굿놀이복식은 전통복식을 착용하여 신의 성별과 신분을 묘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굿을 연행하는 가운데 무당이나 토로사가 착용한 복식을 통해 등장인물의 역할 묘사하였는데 무속복식에 한국과 중국 전통복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통복식공예기법 및 문양을 기반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굿놀이복식에 나타난 차이점으로 남해안 별신굿과 귀주성 나희복식은 한국의 굿놀이와 중국의 나희복식은 모두 색채를 활용한 신격 표현을 하였다. 남해안 별신굿놀이복식과 귀주성 나희복식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된 색은 적색이나 한국과 중국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풀이되었다. 이는 두 나라의 무속복식이 민족적 사상과 문화에 차이가 있어 서로 차별된 상징세계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적색을 제외한 복색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별신굿놀이복식은 백색, 녹색(청색), 황색, 회색이 사용되며, 나희복식에서는 흑색, 분홍색, 연두색 등이 주로 사용되어 서로 다른 의미 구성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무속에서 착용하는 무속복식의 고유성 및 문화 전파적 측면을 파악하는 과정의 일부로 동일 한자문화권인 중국 무속과의 비교를 통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함으로써, 무속복식의 특수성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밝히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전통복식의 비교연구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도 갖는다.

##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중국 호남·귀주의 나당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수옥. (1999). *한국미술에 나타난 음양오행에 의한 색채표현에 관한 연구: 오방색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김초영·장국강. (2015). 중국무속복식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7(2), 111-124.
- 김은희. (2008). 한국과 중국의 종교의례적 놀이 비교연구. *비교민속학*, 36(-), 159-192.
- 김지언. (2009). 한·중 전통극에서의 색채문화 비교;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복문화*, 12(2), 5-16.
- 김형근. (2010). 남해안지역 굿놀이의 양상과 비교. *한국무속학*, 21(-), 221-222.
- 김형근. (2012). *남해안굿 연구*. 서울: 민속원.
- 남해안 별신굿보존회. 2015년 정기발표공연 팸플렛.
- 박진태 외. (1996). 中國 貴州의 德江 儺堂戲研究. *비교민속학*, 13(-), 412.
- 박진태. (1998). 중국 귀주의 나당희가면 연구 -한국 무속가면과의 비교를 겸하여-. *중국학곡*, 6(1), 262-264.
- 박진태. (2014). 별신굿과 공연예술 -제의적 연극을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29(-), 15-45.
- 박진태, 최준하. (1996). 중국 귀주의 덕강나당희연구. *비교민속학*, 13(-), 411-441.
- 신다애. (2009). *한국인의 전통생활 속에 나타난 백색 선호의식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정현. (2004). 별신굿의 물적 기반과 지역경제. *비교민속학*(27-), 177-178.
- 차금주. (2000). *한국 승부의 염색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용수 외. (2005). *아시아의 무속과 춤 연구*. 서울: 민속원.
- 하효길 외. (2002). *한국의 굿*. 서울: 민속원.
- 高國藩(1999), 中國巫術史, 上海三聯書店.
- 國劇服裝의色彩初探. 자료검색일 2016. 4. 29, 자료 출처 <http://stu.tevs.ilc.edu.tw/~ling/article/china.htm>
- 王秋桂(1993), 中國儺文化與民間信仰專輯, 施合鄭民俗文化基金會.

- 鹿修明(1992), 中國儺文化與民間信仰, 臺灣學生書局.
- 鹿修明(2000), 貴州儺戲研究 - 回顧與展望, 儀式, 戲劇與民俗學術研討會.
- 黃強(1996), 神人之間-中國民間祭祀儀禮與信仰研究, 廣西民族出版社.
- 呂友仁 譯註(2004), 周禮·夏官·方相氏, 中州古籍出版社.